화순군, 결혼장려금 정책으로 청년층 결혼·지역 정착 효과 입증

'결혼장려금 최대 1,000만원'… 전남 도내 최고 수준 지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결혼장려금 정책이 청년층의 결혼을 촉진하고 지역 정착을 이끄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화순에서 결혼하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통해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인구 감소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 결혼장려금 321쌍에 17억 원 지원… 지역 정착 효과 뚜렷

화순군은 2021년부터 전남 도내 최고 수준의 결혼장려금 제도를 시행해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결혼 후 5년간 매년 200만 원씩,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책 시행 후 현재까지 총 321쌍의 신혼부부에게 17억 원의 결혼장려금이 지급됐으며, 이 가운데 52쌍은 최대 지원금인 1,000만 원을 받았다.

특히 지급 대상 부부 중 근무지 변경 등으로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는 28쌍에 불과해, 대부분의 부부가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장려금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화순을 생활 터전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실질적인 정주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청년·다문화 가정까지 포용하는 결혼 지원 정책

화순군의 결혼장려금 정책은 청년층의 결혼을 촉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정착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부 중 1명이 초혼이며, 혼인 신고 후 부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다. 혼인 신고 당일 전입 신고를 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 청년층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 출산 후 또는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해 화순에 주민등록을 두면 최초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결혼에서 출산·양육까지… 전방위 청년 정책 확대

화순군은 결혼장려금 외에도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주택 제공, 24시 어린이집 운영, 출생기본소득 지급, 출산·양육 지원금 등이 있으며, 결혼부터 출산·양육까지 이어지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은 청년층의 결혼과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화순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맞춤형 정책을 적극 발굴해 지역 정주 인구를 늘려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화순/김종환 기자

완도군, 해양치유 등 핵심 사업 추진력 높이기로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 개최

완도군은 지난 8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정 운영 방향과 부서별 핵심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보고회는 지난해 거둔 성과를 종합적으로 되짚어보고 올해 추진할 중점 과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먼저 "지난해에는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산업, 해조류 블루카본 선도 등 완도형 미래 전략이 구체화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스마트 융복합 K-해양치유 허브 및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K-해조류 기반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 구축 ▲완도~고흥 해안 관광도로 건설 등 주요 핵심 사업이 정부의 지역 공약에 반영되며 추진 동력을 확보한 점이 눈에 띄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회는 전 부서의 세부 사업을 일괄 보고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력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부서별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보고된 핵심 사업으로는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 ▲해양바이오산업 고도화 ▲해조류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대응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완도~고흥 해안 관광도로 등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다.

신 군수는 "해양치유산업을 중심으로 해양바이오산업과 블루카본, 국책·SOC 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고, 복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진도군,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 농식품 바우처 신청 접수

'만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로 지원 대상 확대

진도군은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취약계층의 영양 수준을 개선하고 지역 농업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였는데, 올해부터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면서 예산도 지난해 6,400만 원에서 올해 1억 2,600만 원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1인 가구 기준 매월 4만 원부터 10인 이상 가구에는 매월 최대 18만 7,000원이 지원되며,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 국산 과일, 채소, 육류, 흰 우유, 신선알류, 잡곡, 두부류, 임산물 등 필수 농식품을 지정된 사용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 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농식품 바우처 온라인 시스템, 전화(☎1551-0857)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농수산유통사업소(☎061-540-113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농업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행정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영암군, 청년부부에게 최대 500만원 지원한다

'2026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3년간 3회로 나눠 지급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청년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2026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에 따른 이 지원은, 신혼부부 경제 부담 완화,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을 위한 것. 결혼장려금은 3년간 3회로 나눠 지급되며, 1차 20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을 지급한다.

최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영암군민이어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고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단, 부부 중 누구라도 결혼축하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인 체류기간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이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부담을 덜고, 지역 내 안정 정착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의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난에 있고, 안내는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061-470-2553)에서 한다.

영암/김희선 기자

곡성군, '나만의 향수&디퓨저 만들기' 체험객 모집

곡성군이 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 내 '장미의 뜰'(舊 공무도하)에서 오는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주말 4회에 걸쳐 '취향 맞춤형 향수 및 디퓨저 제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직접 향을 선택하고 조합해 자신만의 향기 아이템을 제작하는 체험형 콘텐츠로, 겨울철에도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곡성군은 이를 통해 섬진강기차마을 방문객에게 새로운 체험 요소를 제공하고, 장미를 활용한 체험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의 프로그램 참가비는 5천 원이다. 곡성군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방식을 보완해, 향후 장미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매달 정규적으로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나만의 향수 만들기' 프로그램은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를 대상으로 1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운영된다. 연인과의 데이트는 물론 친구와의 추억만들기, 혼자만의 감성 시간으로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신청은 1월 12일부터 1월 21일까지 네이버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또 '우리 가족 디퓨저 만들기'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1월 31일과 2월 1일에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로 네이버폼을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장미가 지닌 향과 감성을 체험 콘텐츠로 연계해 지역의 특색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참가자 반응을 면밀히 분석한 뒤 정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담양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올해도 이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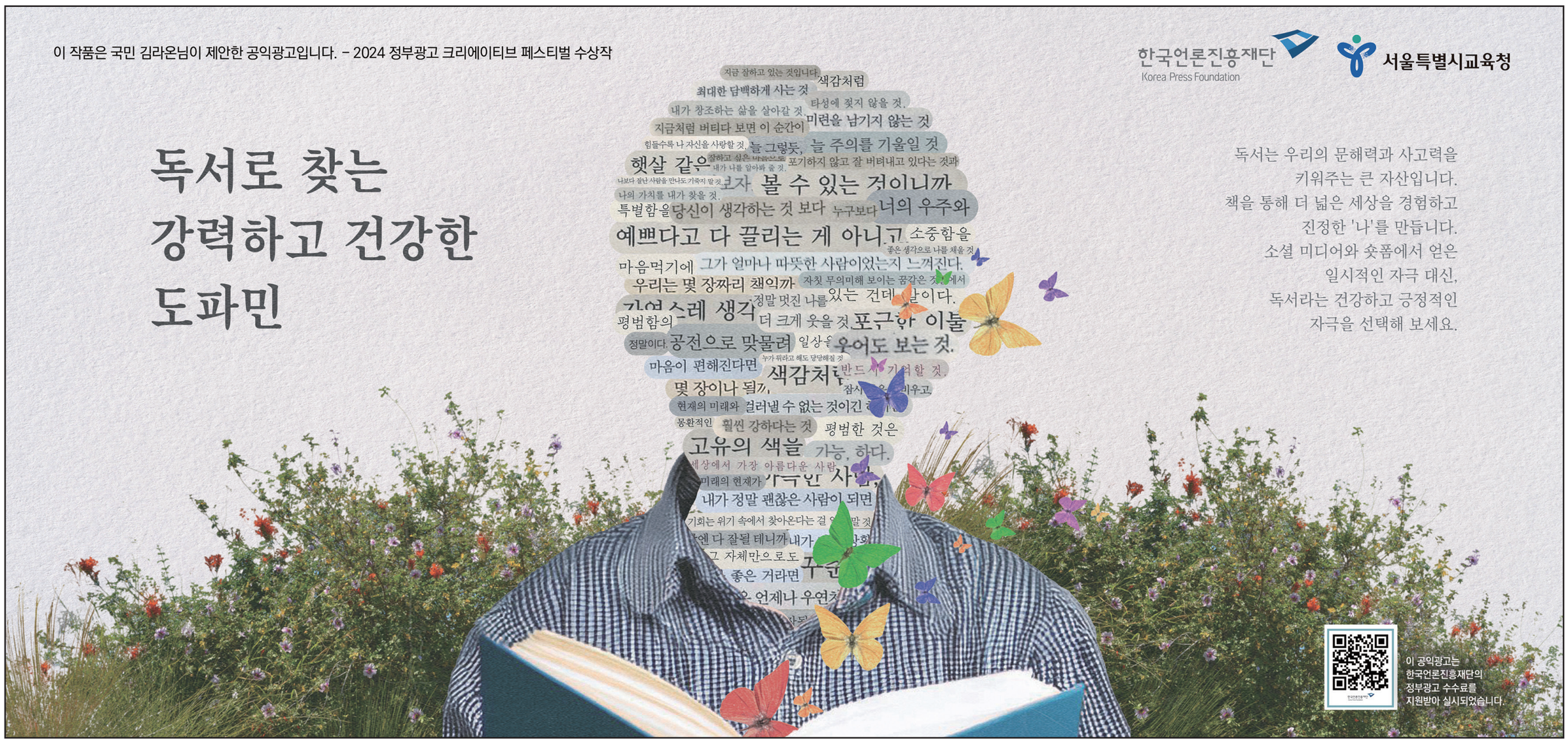
고물가·인건비 상승 속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 기대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나빈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농기계 임대서비스를 이용한 농가는 총 5,960 농가로, 전체 임대료 수입은 9,800만 원에 달해 높은 이용률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는 농촌 인력 부족과 영농 자재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농가 지원 정책의 하나로, 관내 농업인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남부지소·서부지소 가입 회원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트랙터, 관리 등 모든 기종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많은 농업인이 임대료 감면 혜택을 통해 영농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올해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면 조치를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임대료 감면에 그치지 않고 농기계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신규 기종 확충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농기계 임대 사업과 함께 농기계 운용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와 현장 안전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담양/이종옥 기자